

會員文藝

隨筆

조용한 선언서

—진리의 성을 지키는 대학사서에게—

한 상 완

1.

우리는 우울하다.

어느 직업인 치고, 어떠한 계층에 있는 사람치고 삶에의 우수가 깃들지 않는 이들이 있으라. 불교의 <역점의 번뇌>나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의 <원죄>의 차원을 운위하지 않더라도, 인간, 가장 인간적인 상황은 영속적 시공의 흐름 위에서 끊임없는 우울을 낳는 것이다. 엷은 것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도록 스민 우울을... 그런데 대학의 주변에서 서성이는 사서들에게만 더 우수에 싸여 있으란 법은 없겠으나 작은 항목의 몇몇 요인은 우리를 처진 심상으로 인도하기에 족한 것들이 있음을 터 놓으려는 것이다.

상아탑에서의 두뇌의 기능을 이해하고, 학문의 키 잡이로서 좌초에 걸리지 않을 대학도서관 사서의 위치는 가끔 물이해의 안개속에 묻히기 일수다. 대출계의 사서 앞에 나타난 험센한 엘리트군과 엘리트간트양은 사서란 칭호나 선생이란 말을 얼떨결에 잊었는지는 몰라도 <아저씨> 운운하며 무얼 요구한다. 이 선택된 지성인 후보들은 과연 도서관을 잘 활용해서 자기들의 학문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저어됨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인사의 단순한 잘못을 탓하기 이전 그들의 포괄적 대학 이해의 착오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다. 또 교수들의 사고, 가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거목>들로서의 도서관 도외시의 풍조에 재고의 여지가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짝사랑의 가슴병환자처럼 우리는 답답한 것이다. 학문 전수 및 창조외 <미디어>센터라 개칭되기에 족한 도서관의 광범한 원자료를 학문에 직결시켜 나가지 않는 분들의 그 정황을 우리는 근심하는 것이다.

대학의 사서는 대학교 직제에도 분명히 식별되어 있지 않다. 교수와 학생의 피라미드형으로 솟은 두번에 직원이란 저변이 존재하는데, 통칭되는 <사무직원>의 계층에서 한국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한 발자도 전진하지 못한 상태이다. 소위 자격을 갖춘 사서, 대학을 하고 대학원에서 연구하여 학위를 가진 사서라 할지라도

이 답습상황의 범주를 호봉의 차이에서 밖에 다른 신분의 구획을 도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한국적>이란 관사를 우리 벗어나야 될 사항은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이 <근대화>의 정신 기저가 아니겠는지. 그 관사가 한정하는 구속적 정신영역을 한국 대학의 사서란 직종의 경우에서도 벗어나야 할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움직임이 있어야겠다. 그래야 칩제상태의 도서관 주변 풍토가 조금은 훈기와 생명력이 있지 않을까. 최소한 대학의 전문사서에게 사무직과 구별하는 대학 경영자의 영단은 객관적 견지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도서관, 즉 두뇌를 녹슬지 않게 하는 비결은 머리를 쓸 줄 아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 이상의 효율적 방법론은 없기 때문이다. 사서직을 대학사회에서 확립하고 최소한의 연구수당이 지급되는 날을 한국 대학도서관 내부에서의 청색혁명 기념일로 잡아 좋지 않을까. 물론 전문직 사서로서 최소한 4년간의 대학과 2년 이상의 전문적 연구를 할 것을 대학 사서들의 전제적 과제로 삼고서의 얘기지만...

생각하는 동물, 그래서 생각 못하는 동물과의 구별로서의 <인간>이란 명사는, 사람이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이리라.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야 말로 고뇌의 험로를 걷는 이들에게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예로부터 청·소장 지식인에게 선망의 적이었던 <사서>의 오늘날은 복고주의의 진부함을 넘어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우울을 사념하는 대학의 한 모퉁이에서, 오늘 대학사서 제위는 쓸쓸한 것이다. 더 얘기를 말자. 보수의 영세성이라던가, 실력껏 일하고 연구하는데 따라 비례하지 않는 승진, 생활의 단순성 등등의 소조항들을. 미래에 그리고 현재와 과거에 처리되지 않은 개념의 벽을 무너트려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세대의 우리임에랴. 앞길에 성실한 연구와 푸른티어혈의 발현이 있을 뿐이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예찬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쟁취하여야 할 마땅한 위치—대학의 전문사서가 교수 호칭을 겸하여 갖고, 그이름에 뒤지지 않는 내면을 구축할 때, 학문의 공동체의 중심에

서 소외되지 않고 우울을 카버할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의 낙관론인 것이다. 예찬의 한 다른 차원의 대상으로
서—

II.

그러나 진리의 궁전에서 우린 현실을 수행한다.

도서관이 책이나 갖다 놓고 열람실이나 갖춘 그럴듯
한 건물만 있으면 된다는 사고는 소멸되어 가는 과정
에 있다. 그러나 사서가 교육수준이 필요이상으로 높
을 이유가 있다든지, 유능하고 박학한 인문교육의 터
전을 담은 사람이야 한다는 데서는 섣뜻 동의하려는
이들이 드물다. 무엇보다 그런 사람이 하필이면 대학
의 사서를 하겠느냐는 반론이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
학을 해서 현 사회의 수요에 응하고 거기에 상응한 보
수를 받아 시민생활의 안락을 누리는 것이 보다 현명하
다는 것이다. 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위주의
생활 패턴을 감히 그르다고 맞설 수 있겠는가? 그러
나 인간에게는 <개성>이라는 문화현상의 밸런스를 맞
출 수 있는 아주 신기한 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획일주의나 한 세기를 풍미하는 <유행성 가치관
념>에 도전하는 유일한 무기인 것이다. 개성에 깃든 다
양한 인간정신, 이를 바탕으로 한 학문영역의 선택, 그
리고 자아를 투자하고 한 주기의 생애를 통하여 정열
을 쏟는 일—이것은 가치의 편파성을 배제하는 <문
화의 묘약>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도서관학을 전공한 일, 그 후에 대학이나 기타 도서
관의 사서가 되는 일, 그것은 분명 경영학이나 공학을
해서 기술사회의 최전선에서 자본축적의 기회를 갖는

것보다는 시원치 않은 <선택>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의 그 선택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는 현명하
고 진보된 사회에서는 전술한 경우 이상의 품격을 부
여할 수 있을 것임도 또한 틀림없는 것이다. 단지 우
리는 청빈의 예스런 습성을 탈피하기에는 늦게 깨달아
개발도상국이란 국제사회의 통칭을 얻기에 마땅한 사
회 여건에 속박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풍부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날카로운 자아 의식과 지식인으로서
의 주관을 스스로 높게 사는 사서를 나는 매력있게 보
는 것이다. 청빈의 순수함과, 자기들이 구성하는 인류
문화의 정수에 대한 포만된 자아확인과 그와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그러므로 인간의 영원성에 접근하는 여
정을 가지는 사서를...

삶의 정밀한 내부를 컴퓨터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문제의 계기는 이즈음 심각하다. 그 와중에서 사서는
<인간적> 정신의 기저를 담당하는 직업인으로서 외롭
고 화려하지 못하나, 숲의 기린처럼 결백하고 고결한
것이기 조차 하다.

밤에 대학캠퍼스를 살필 기회가 있는 이에게는 유난
히 빛이 흐르는 건물이 보이게 마련이다. 진리의 안식
처가 있다면 꼭집어서 어디라고 말하는 친진한 사람은
없겠지만, 별별기 찬란한 한 빛이 새 나오는 도서관이
야말로 진리의 <궁전>이 아닐지. 왕의 도성이 아닌 한
없이 자유로운 진리의 <성>—여기에서 창조적인 미
태를 향으려는 지성인들의 참 정신의 산파를 자처하는
사서는 현실을 빚고 있는 것이다. 그침없을 진보의 기
치를 펴려가면서. (연대도서관 참고사서)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 學術雜誌預約購讀에 關한 모든일은 보다 빠
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
십시오.
- ◎ 海外學術雜誌 預約購讀에 關한限 世界の 어느 出
版社의 刊行物이나 貴下가 願하는 대로 妥善히 處
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부와 單行本부를 設置하고 有能
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
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
하여서도 빠른 情報을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貴下께서 아직도 폐사와 關聯을 맺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을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の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포드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号
 電話 (74) 4 8 5 5 · (75) 4 1 5 5

